

01 교회소식

비가 오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무지개

본 제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확증시켜 주는 무지개의 역사를 살펴본다.

02 생명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성결을 이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되면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03 기획특집

“이런 마음이 없어야 믿음의 반석이에요”

믿음의 반석에 서기 위해 버려야 할 9가지 마음과 반석에 들 어오지 못하는 사례들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자.

04 간증

깨달음과 변화, 치료의 축복!

우상을 버리고 각종 질병을 고침받은 일본 시모다이라 미야코 성도와 아들의 손상된 성장판이 온전해진 함은정 집사 간증.

# 만민뉴스

제642호 2014년 7월 13일 (주간)

##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신비롭고 아름다워요. 아버지 하나님을 느껴요”

## 원형 무지개, 희한한 무지개로 펼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

무지개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노아 홍수 이후에 나온다.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말씀한다. 이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육의 공간인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며, 더불어 육의 공간이라 할지라도 영이신 하나님의 일들이 이뤄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에는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시며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음을 알려 주신다.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할 때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 어떤 징표를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세상과의 언약의 징표로서 친히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를 보여 주시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과학이나 지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이하고 희한한 무지개가 나타난다면 그 의미를 궁구해 보아야 한다.

### 비 온 뒤 기상현상으로 나타나는 일반 무지개와 달라

일반적으로 무지개는 공기 중의 물방울에 의해 태양광선이 반사·굴절돼 일곱 빛깔의 원호로 비가 온 직후에 태양의 반대쪽에 나타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기오염으로 무지개를 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1998년 5월 15일, 우리 교회 상공에 해를 두른 원형 무지개의 출현 이후 만민성도들은 국내외 만민교회 상공과 각종 행사 및 선교 현장에서 무지개를 본다. 하나님께서 영의 공간을 열어 하나님 보좌를 두른 무지개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다.



Nikon D80, Fisheye 10.5mm, 1/500, f/11, ISO 200



Fuji SLP800



Nikon D2X, Fisheye 10.5mm, 1/250, f/11, ISO 100



Nikon D2X, Fisheye 10.5mm, 1/1000, f/13, ISO 200

### 해를 중심으로 한 원형 무지개와 각종 희한한 무지개

2000년 8월, 하나님께서는 공의 가운데 해를 중심으로 한 4중 원형 무지개를 보여 주셨다. 하나의 원형 무지개는 ‘너와 나, 모두가 진리 안에서 하나’라는 의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 삼고 섭리 가운데 하나 됨을 이뤄 가신다는 약속의 의미가 담겨 있다. 또 이중·삼중 원형 무지개는 하늘이 분리돼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중 원형 무지개는 둘째 하늘을, 삼중 원형무지개는 셋째 하늘을 열어서 보여 주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중 원형 무지개는 첫째, 둘째, 셋째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가 동시에 겹쳐 보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중 원형 무지개는 근본 하나님께서 계시는 넷째 하늘 공간까지도 열어서 보여 주시는 것이다.

2003년 4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선교 시 보여 주신 또렷하고 커다란 원형 무지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의 공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의미로서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서 모든 것이 베풀어진다는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다(사진 1).

2006년 콩고 연합대성회 시에는 선교팀 탑승 비행기 밖으로 새로운 형태의 무지개가 출현했다(사진 2). 원형 무지개 위로 부채꼴 무지개가 진하게 펼쳐졌고, 원형 무지개의 좌우와 밑에 강한 빛이 발산됐다.

### 언약의 성취를 의미하는 반지 모양의 무지개 출현

2010년 4월에는 우리 교회 십자가 탑 상공에 반지 모양의 희한한 무지개가 떴다. 마치 해를 다이아몬드로 박은 듯한 반지 모양의 무지개와 해를 중심으로 한 원형 무지개가 합쳐진 형태였다(사진 3). 이는 땅 끝까지 증거된 성결의 복음을 통해 결국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뤄지고 가나안 성전, 대성전 등 마지막 때의 섭리를 변함없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한다.

2011년 1월에는 무안단물터 상공에 복합적인 무지개가 출현했다(사진 4). 해를 중심으로 한 원형 무지개와 그 위에 양 옆으로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은 듯 독수리 날개처럼 생긴 무지개가 걸쳐 있고, 그 위로 반원형 무지개와 부채꼴 모양의 무지개가 어우러진 형태였다. 무안단물터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출 15:25), 전남 무안만민교회 앞 바닷가의 짠물이 이제록 목사의 기도로 단물이 된 권능의 현장이다.

지난 6월, 교역자회장 이수진 목사를 강사로 진행된 러시아 선교 출장 시에도 매일 대형 반원 쌍 무지개, 원형 무지개, 일자 등 다양한 무지개를 보여 주셨다. 또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있었던 ‘2014 전국 지역장·조장·구역장 교육’ 시에도 무지개를 보면서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모든 일정을 더욱 행복하게 마칠 수 있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7)

#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세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되니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으로서 죄를 버리고 마음의 의를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힘만으로 죄를 버릴 수 없으므로 행위로 죄를 짓지 않으면 죄인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위적인 구원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죄를 버리기 위해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죄를 온전히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버리고 성결을 이룩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의인이 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 2.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의인이 되기까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삯은 사망”이라 말씀한 대로 죄인은 원수 마귀 사단에 속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돌이키면 사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면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만지지도 못하니 질병과 상관이 없으며 영혼이 잘될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운동 선수들이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의인이 되기까지는 연단이 따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감당할 만한 연단을 허락하시며 더욱 영혼이 잘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친히 인

도하며 연단하셨습니다. 갈 바를 모른 채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게 하시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창 17:1) 하시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으로서 완전해지기까지 연단하셨지요. 결국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통과했고 범사에 축복을 받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영적 성장을 위해 연단을 허락하시고 의인이 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을 통과하는 만큼 축복을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이끌어 가지지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 3. 의인이 되려면 영적 믿음을 소유해야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영적 믿음, 즉 산 믿음입니다. 무에서 유의 창조가 믿어지는 믿음이요. 다시 말해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내 생각과 지식에 맞추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믿음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행하는 믿음,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믿음이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산 믿음입니다.

이러한 영적 믿음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진리를 알 수 없으니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각종 모임을 통해 말씀이나 간증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지식이 심겨지고 지식적인 믿음이 생겨난다고 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진리에 위배되는 비진리를 버리며 말씀대로 행해 나가야 지식적인 믿음이 받침대가 되어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야고

보서 2장 22절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하신 대로입니다.

### 4.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방법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적 믿음으로 오직 순종하며 믿음의 행군을 했지요.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어떻게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넜고 어떻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이 또한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영적 믿음을 소유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응답으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 성과 범람하는 요단강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의로운 중심으로 진리 안에 사는 것이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나를 때렸을 때 육적 믿음으로 같이 때리고 미워하지만, 영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이해하며 사랑합니다. 이러한 산 믿음, 곧 행하는 믿음이 있을 때 원수 마귀가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 계명을 지키며 진리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고 여리고 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의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는 물론, 영생으로 이어지는 축복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흔히 고아나 과부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온유하고 착해 보이며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 성내지 않으며 말없이 잘 참는 사람을 볼 때 범 없이도 살 사람이라 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겉과 속이 열마든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라 어떤 사람일까요?

### 1.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란?

성경에는 여호와와 의를 행하는 사람(호 14:9),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눅 1:6). 하지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아무리 의롭게 살고자 해도 태어날 때부터 조상의 기를 통해 죄성을 이어받습니다. 이러한 원죄와 함께 성장하면서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 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mailto: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팀(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열차!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가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가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http://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 내 믿음은 반석에 얼마나 가까운가?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7장 24~27절을 통해 믿음의 반석에 서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알려 주셨다. 믿음의 반석에 서기 위해 버려야 할 9가지 마음과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자.

## 믿음의 반석에 서기 위해 버려야 할 9가지 마음

- 열기**

▶▶▶ 아직도 순간적으로 '육'하거나 참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가 있는가? 살짝 짜증 섞인 말투가 나오고 감정이 담긴 말을 '톡톡' 던지지는 않는가? 스스로도 열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아야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있다.
- 감정(感情)**

▶▶▶ 지적이나 책망을 들을 때, 주변에서 자신을 섬겨 주지 않을 때, 수고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애매히 오해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때 불편해하거나 서운해하지는 않는가? 혹여 힘이 빠지고 낙심돼 기도할 힘이나 사명 감당할 힘조차 오지 않는다면 아직 감정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 미움, 시기, 질투**

▶▶▶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사랑과 인정, 칭찬을 받을 때 내 마음은 어떠한가? 이 한 가지만 점검해 봐도 내 마음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영의 마음에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아니면 멀리 있는지를 알 수 있다.
- 거짓과 속이는 마음**

▶▶▶ 자기 유익을 위해 상대를 속이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 자신의 공을 드러내고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고하거나 실적을 부풀려 보고하는 것,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줄이거나 감추는 것 등 이런 모습들은 다 거짓이고 속이는 것이다. 당장 눈앞의 현실을 덮는 데 급급해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사람은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 판단**

▶▶▶ 사람들은 보통 외모로 상대를 판단하거나 자기 생각이나 지식 등 자기 기준에 맞춰 상대를 판단한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행위는 같아도 각 사람마다 중심이 다르고 그 행위를 하는 의도와 목적이 다를 수 있기에 선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 변개함**

▶▶▶ 일상생활 속에서도 수시로 변개하며 자신과의 약속은 물론 다른 사람과의 약속,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약속도 쉽게 어기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한다.
- 간음**

▶▶▶ 행함으로 짓는 간음은 말할 것도 없고 이성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거나 생각으로 짓는 간음조차 철저히 벗어야 한다. 원수 마귀 사단이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기 위해 가장 쉽게, 가장 끈질기게 미혹하는 것이 간음임을 꼭 기억해야 한다.
- 욕심, 사심, 탐심**

▶▶▶ 욕심과 탐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가진 물질을 탐하고 명예, 권세, 외모까지도 부러워하며 탐하게 된다. 또 사심은 정과 욕심을 좇아 개인적인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서, 이로부터 갖가지 부정이 일어난다. 이러한 것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것이 물질과 관련해서이다. 이렇게 취한 물질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좇게 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 배신**

▶▶▶ 배신은 변개함, 간사한 마음과 관련이 있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거짓말하는 마음, 교만의 마음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배신이라는 악을 낳게 된다. 은혜 받은 것을 잊는 것, 자기 유익을 위해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 상대와 약속해 기대하게 해 놓고 그 기대를 저버리는 것도 배신이다.

## 믿음의 반석에 서지 못하는 사례들

- 1.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이 부족한 경우**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도 변화되지 않는다. 영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반드시 변화돼야겠다는 절실함, 목자를 붙잡는 것이 영으로 변화되는 데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깨달음과 행함,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변화될 수 있다.
- 2. '욕심'으로 인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는 경우**

아직 버리지 못한 '욕심'의 분야가 육신의 생각을 날게 되고 자기 유익을 좇는 행위로 나오게 된다. 이처럼 자기 안에 악이 남아 있으면 이로 인해 육신의 생각이 동원된다. 스스로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야.' 하며 자기 악을 정당화 한다.
- 3. 마음과 입술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

자신의 행동과 다른 사람의 행동에 차이가 있을 때, 선으로 이해하고 상대의 장점을 바라봐 주기보다는 불편한 마음이 든다. 마음과 입술에 불편함이 많은 사람은 그 원인을 남의 탓,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불편함은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주변의 환경이 만드는 것도 아니다. 바로 감정(感情), 의와 틀 자기 안의 육에서 나오는 것이다.
- 4. '교만'으로 인해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교만한 가운데 착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착하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자기적인 선 안에 갇혀 있기 쉽다. 교만은 자기 모습을 깨닫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주변에서 지적하고 권면해 줘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만든다.
- 5. 자신의 '강한 틀'로 인한 경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강한 틀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화평을 깨면서도 '나는 이렇게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다.'라고만 생각한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목자를 사랑한다 하지만 영적인 사랑으로 하기보다 육적인 사랑과 정에 얽매인 경우가 더 많다. 육적인 정과 사랑에는 서운함이 틈탄다.

2014 JULY 주요 프로그램 안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2014. 07.13~07.19

**01** 이재복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천국 11-15 ■ 지키시는 하나님 1
- 요한일서 강해 43
- 창세기 강해 112 ■ 영의 사람
- 십자가의 도 21-24 ■ 축복 1
- 믿음의 분량 19-23 ■ 사랑장 1
- 공간과 차원 3-7 ■ 위로부터 난 지혜 5-9
- 우리 삶의 등불 19

**02** GCN TV설교

-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8 (이수진 목사)
- 선택과 결과 (이미영 목사)
- 눈물의 열매 2 (이미영 목사)
- 용기 강해 1/생명수 3 (신동초 목사)
- 영의세계 3-4 (이희선 목사)
- MIS강의 13/언약계 3 (정규영 목사)
- 사랑, 변화의 원동력 (교경아 교육전도사)

**03** 예능 프로그램

- 즐거운 요리 13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1-2
- 옛날 옛적에 1-2
- 찬양 드려요 5
- 모두 드려요 11
- 몽도 토티 마음도 토티 26-27
- 흥겨운 소리 7
- 향기5-6 ■ English 5, 7
- 아름다운 예배 2-3 ■ 뷰티풀라이프 1-3
- 만민지킴이 6
- 플로리스트 5-7

**04** 해외성회 및 교육

- 뉴욕연합대성회 2
- 회상 4, 11
- 2013 기관장 교육 10-11

**1577-2073**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 “우상을 버린 뒤 각색 질병을 치료받고 강건해졌어요”

저는 지인의 전도로 일본 이다만민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지만 등록하지는 않았습니...

니다. 또한 수입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는 십일조 생활을 하니 농사도 풍작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을 치료받아 강건한 몸이 됐습니다.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형 19:11~12)으로 유승길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7-8년 된 고혈압과 빈혈이 치료되었습니다.

아울러 16년간 고통을 받던 심한 동상을 깨끗이 치료받아 아주 행복합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동상으로 열 발가락에서 피가 나고 걸을 수 없을 정도였지요.

최근 병원 검진 결과, 4년 전에 우측 눈 백내장 수술을 받아 0.6이었던 시력이 1.5까지 회복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안약 대신 무안단물을 믿음으로 꾸준히 뿌린 결과였지요.

시모다이라 미야코 성도 (일본 이다만민교회, 76세)



어느 날, 유승길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우상숭배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일본의 가정에서는 보통 불단이나 가미다나(집에서 모시는 작은 신전)를 비롯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들로 집을 장식합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영육 간에 많은 축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매일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했지요.

### “아들의 엄지손가락 골절과 손상된 성장판이 온전해졌습니다”

지난 5월 19일, 아들 성결이가 오른손이 통통 부은 채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을 움직이기에 저는 단순한 타박상 정도로 생각하고 성결이에게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02-830-5320)’를 받게 했지요.

그 후 통증이 사라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기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성결이는 왼손잡이였기에 불편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물리치료사인 남편 고민우 집사는 아들의 엄지손가락이 부자연스러운 것 같다며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5월 31일, 정형외과 의원에서는 엄지손가락 골절과 성장판이 손상됐다고 반갑스로 고정해 준 후 큰 병원으로 가볼 것을 권했습니다.

6월 3일, 척추 및 관절 전문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결과 예상대로 엄지 기저부(뿌리 부분) 골절 및 성장판 손상이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엄지손가락은 대부분 위나 중간이 골절되는데 밑 부분이 골절된 것은 의사 생활 중 어린 한 명 외에 어린아이는 처음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핀을 박는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대학병원으로 가보라고 소견서를 써 주셨지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대대교구장 이미영 목사님이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며 금식하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구역장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한 것을, 남편은 성결이를 진리로 양육하지 못한 점을, 성결이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것과 친구들과 싸운 것을 회개했지요.

6월 5일, 저와 성결이는 자동응답서비스 ‘환자기도’를 받은 후 대학병원 소아 전문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제 마음은 평안했고 치료의 확신이 들었지요. 과연 엑스레이 촬영 결과는 골절된 부위도 잘 붙었고, 성장판도 이상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단 이틀 만에 정상이 된 것이지요. 할렐루야!

다음 날 금요일아침예배 전, 당회장님께 직접 기도를 받은 후 성결이는 언제 다쳤느냐는 듯 엄지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희 가족은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더욱 믿음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삼위 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함은정 집사 (3대대 32교구, 35세)



기도받기 전 우측 엄지손가락 기저부 골절 및 성장판 손상을 보이고 있다.



기도받음 후 우측 엄지손가락 기저부 골절된 성장판이 재자로 이동되어 있다.



#### 국내 지교회, 지정성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9818-9833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북성 5/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1070-3601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울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천안만민성결교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서량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세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6650-2046

- 말양만민교회 경남 말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전원맨션 2동
055)852-5815, 010-9196-3927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주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손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637, 2층
033)261-4217, 010-2759-7017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변영로 238, 2층
033)637-0271, 010-7733-1327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성시 성북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4201-2073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93-9857
결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10-3430-3312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귀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430-3312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증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